

칠레 포도산업 동향*

김 경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칠레 과수산업 개황

1.1. 과수산업 개황

칠레 과수산업은 남반구에서 신선과일 수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칠레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과수산업은 고용과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칠레 과수 수출산업은 재배규모가 5ha 이상인 7,80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518개 이상의 수출회사를 통하여 과일을 상품화하고 있다. 과수산업은 약 21만 5,000ha의 재배면적에 75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여 세계의 70여개 국가로 직접 수출한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별 및 포장 기반을 구축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효율적인 선별 및 포장과정을 위한 기반시설로,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지역 포장센터와 100여개에 이르는 중앙 포장센터, 385개 이상의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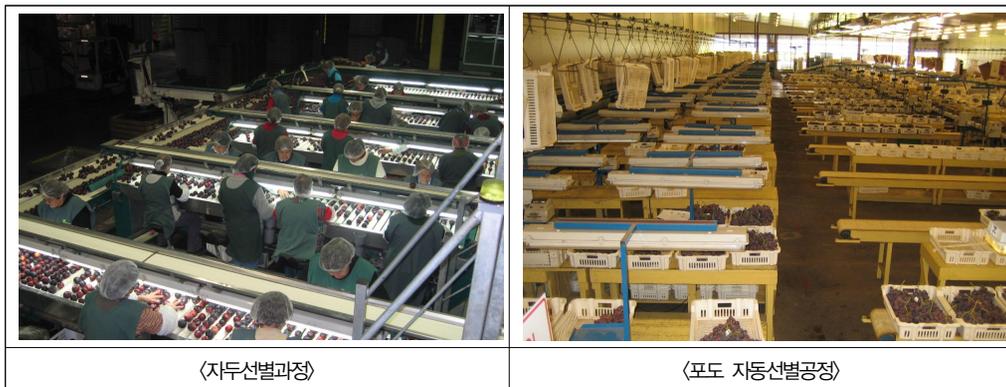
* (kkphil@krei.re.kr 02-3299-4312).

1.2. 우수농산물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칠레는 과수 수출국가로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GAP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안전농산물을 확보하는 일련의 법규들을 포함한다. 즉,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칠레의 GAP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태로든 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레의 GAP 프로그램(Chile GAP)은 농장단계에서부터 실시되며, 주된 목적은 작물과 병충해, 작업자의 후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위생과 안전성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장단계에서 Chile GAP 프로그램은 우수공정조치(Good Manufacturing Practices)와 표준위생작동절차(Standard Sanitation Operational Procedure, SSOP's)를 적용한다. 농가단위 포장단계에서 프로그램은 위해물질조절(Contamination Control of Critical Points, HACCP)과 작업자의 안전 및 후생을 고려한다.

그림 1 칠레 GAP 프로그램에 의한 엄격한 선별·포장 과정



1.3. 칠레 과일수출연합회(Chilean Fruit Exporters Association, ASOEX)

칠레 과일수출연합회(Chilean Fruit Exporters Association, ASOEX)는 칠레 신선과일 수출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회원의 수출물량은 칠레 신선과일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ASOEX의 역할은 칠레신선과일 부문의 이익과 산업훈련 프로그램, 구성원들 사이의 기술 교류와 세계 각국의 신시장 개척,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과수 수출국가로서 칠레는 생산 과일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GAP (ChileGAP)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GAP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품질 극대화 이외에도 농산물 영양 보충식품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용, 위생규정, 일관생산, 위생적인 노동, 환경 보호 등도 포함한다.

2. 칠레 과수 생산 동향

2011년 칠레 과일생산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칠레의 과일 생산자 약 2만 8천명 가운데 1만 9천여 명은 국내 시장 생산자이며, 나머지 9천여 명은 수출 생산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내수시장 종사자가 수출시장 종사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지만, 수출 생산자의 과실류 재배면적은 전체 과실류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로 칠레의 과수 산업은 국가의 수출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과수 품목은 포도, 사과, 키위, 자두, 오렌지, 복숭아 등이다.

칠레의 포도는 남반부 국가 전체 포도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포도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사과는 재배면적은 포도의 20%가 채 되지 않지만, 역시 남반구 국가들 중 수출량이 가장 많다. 2012년도 기준으로 칠레의 주요 과일들의 전년대비 생산량 증감을 살펴보면, 모든 품목에 걸쳐서 최소 0.5%에서 최대 4.9%까지 증가했다.

표 1 2012년 칠레의 주요 과실 생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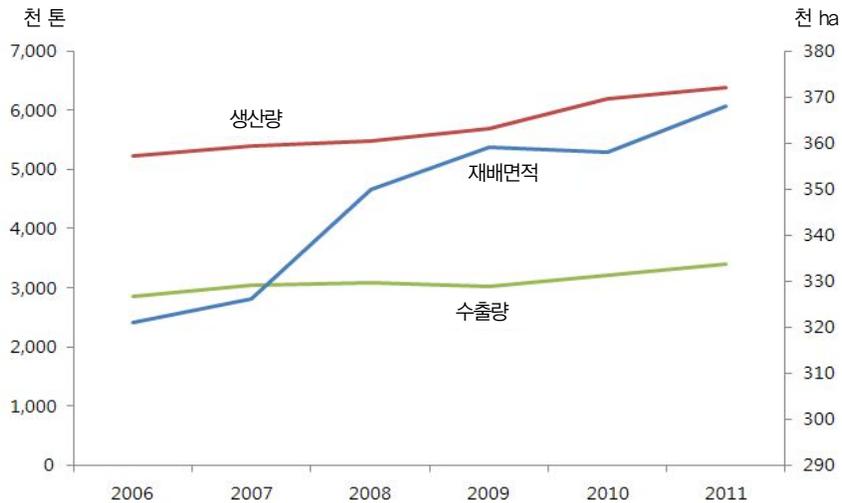
단위: 헥타르, 천 톤, %, kg/ha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전년대비 생산량 증감률	단위면적당 생산량
포도	204,000	3,200	1.6	15.686
사과	36,500	1,625	2.3	44.521
키위	10,950	240	1.2	21.918
배	6,600	191	0.5	28.939
아보카도	37,000	160	2.4	4.324
자두&야생자두	21,500	300	2.3	13.953
오렌지	8,000	145	2.9	18.125
체리	15,500	90	4.9	5.806
레몬&라임	7,500	160	4.6	21.333
복숭아	6,600	325	1.6	49.242

자료: FAO STAT(2012).

칠레 과수 재배면적은 2011년 기준으로 36만 8천ha, 생산량은 639만 톤, 수출량은 340만 톤이다. 2006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4.6%, 22.5%, 19.0%로 칠레의 과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과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6만 7천ha, 277만 톤임을 감안했을 때 칠레의 과수 산업 규모는 한국의 2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칠레 과수 수급 동향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배면적	321	326	350	359	358	368
생산량	5,217	5,385	5,476	5,681	6,183	6,391
수출량	2,860	3,043	3,086	3,030	3,205	3,404

자료: FAO(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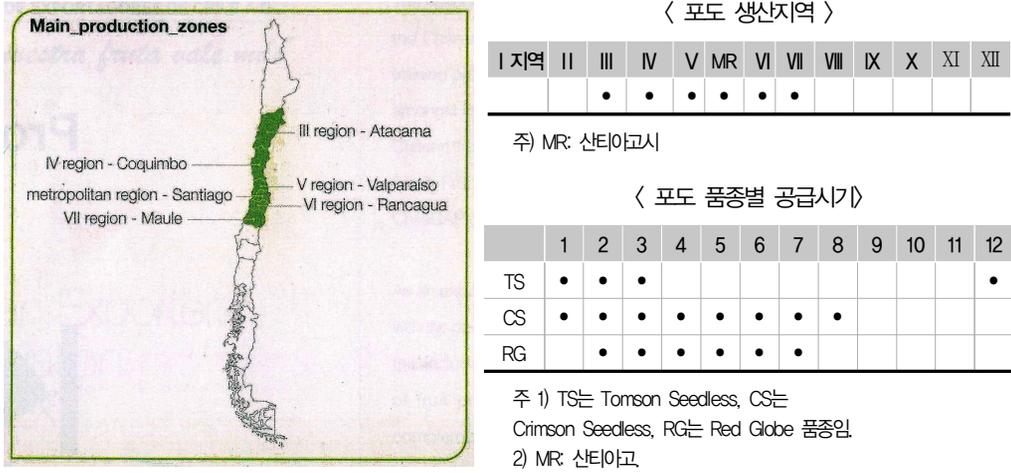
3. 칠레 포도 수급 동향

3.1. 재배지역 및 공급시기

칠레 신선포도의 주 생산지역은 중북부지역(제Ⅲ지역에서부터 제Ⅶ지역까지)이다. 품종별로 톡슨 시드레스(Thompson Seedless)는 12~3월까지, 크림슨 시드레스(Crimpsom Seedless)는 1~8월까지, 레드 글러브(Red Globe)는 2~7월까지 공급된다. 칠레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일 품목들의 현지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신선포도는 12-3월까지 공급된다.¹⁾

1) 칠레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6-9월까지 해당되는 계절에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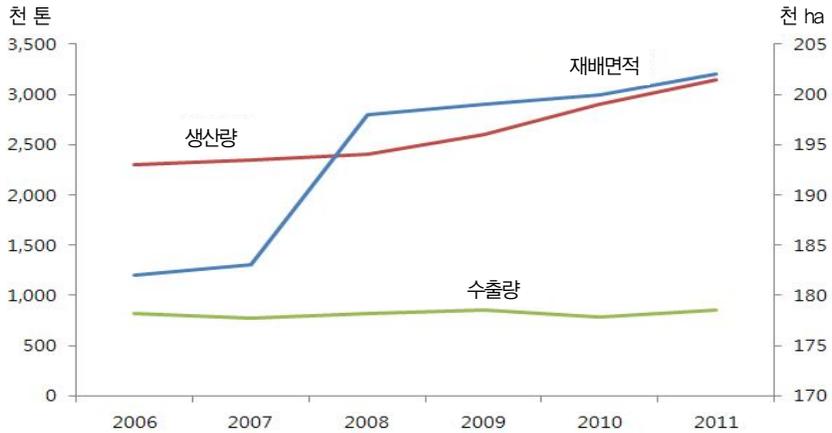
그림 3 칠레 신선포도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3.2.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량

2011년을 기준으로 칠레의 포도 재배면적은 약 20만 2,000ha, 생산량이 315만 톤, 수출량이 85만 톤으로 2006년 대비 각각 11.0%, 36.9%,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그림 4 칠레 포도 수급 동향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배면적	182	183	198	199	200	202	204
생산량	2,300	2,350	2,400	2,600	2,904	3,149	3,200
수출량	823	776	821	850	781	853	-

자료: FAO.

다. 수출량은 연간 8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율에 비해서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3.3. 품종 및 특성

주요 재배 및 수출 품종은 톰슨 시드리스(Thompson Seedless), 플레임 시드리스(Flame Seedless), 리비어 레드글로브(Ribier Redglobe) 등 고품질의 신품종이며 예전 품종은 점점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신품종 포도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칠레 주요 재배 포도의 품종 및 특성

품종	특성
플레임 시드리스 (Flame Seedless)	홍색의 무핵 품종으로 지난 6년 간 칠레에서 급속하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품종이다. 이 품종은 Thompson Seedless보다는 먼저, Perlette와 Cardinal과는 동시에 수확된다. 칠레의 북쪽지방에서는 11월부터 12월초에 걸쳐 수확되고, Curico에서는 3월에 수확된다. 수세는 아주 강하고, 풍산성(발아되는 눈이 많고, 착립이 많이 됨)이 있다. 과립은 원형이고, 고당, 고향이다.
루비 시드리스 (Ruby Seedless)	Thompson Seedless 보다 나중에 수확되므로 시장성이 높다. 과방은 크나 과립은 작은편에 속하고 과피색은 다홍색이며 무핵이다. 수세가 강하고 아주 풍산성이다. 고품질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착방과 착립을 조절하여 과다 수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착립이 과다하면 과피색이 좋지 않으며, 과방은 곰팡이 병에 약하다. 이 품종은 확실히 두 가지의 결함이 있으나, 칠레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레드 시드리스 (Red Seedless)	적색의 생식용 무핵인 이 품종은 아르헨티나의 Gargiulo 교수가 Emperor에 Thompson Seedless를 교배, 선발하여 Emperatriz라고 명명한 품종이다. 칠레에서는 이 품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고 있다. 수세는 강하고 풍산성이다. Thompson Seedless 후에 성숙되나 수확기의 폭이 넓다. 과방이 커서 수출용으로 적합하다. 과립은 아름다운 밝은 홍색의 난형이고 단단하며 바삭바삭하다. 향기는 아주 좋고, 산 함량은 낮다.
블랙 시드리스 (Black Seedless)	고 품질의 무핵이며 양친인 불명확한 이 품종은 Thompson Seedless와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4. 칠레산 포도 안국 교역 동향

4.1. 안칠레 FTA에 의한 포도 관세인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4년에 발효되었다. 칠레산 포도는 국내산 포도 출하시기인 5~10월에는 기존 UR 협정에 의해 감축된 관세 4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준세율을 매년 4.1%씩 인하하여 2014년에 계절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어 무관세로 수입되었다.

4.2. 포도 수입 동향

칠레산 포도의 수입은 관세가 감축되기 시작한(11~4월) 2004년 이후 포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표 3 참조>. 2013년 기준 칠레산 포도 수입은 2004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칠레산 포도는 우리나라 총 포도 수입 중 2003년 기준 35.1%를 차지하던 수준에서 2013년에는 71%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표 3 칠레산 포도 수입금액 및 수입단가 추이

구 분	중량(톤)	금액(천 달러)	수입단가(kg당 달러)
2004년	8,317	13,133	1,579
2005년	11,173	19,158	1,715
2006년	15,221	27,835	1,829
2007년	23,441	47,399	2,022
2008년	29,452	64,185	2,179
2009년	26,090	51,565	1,976
2010년	30,894	74,637	2,416
2011년	39,179	99,541	2,541
2012년	46,597	117,935	2,531
2013년	47,413	144,320	3,044

표 4 칠레산 포도 수입 비중 추이

구분	단위 천 달러, %						
	2003	2006	2008	2010	2012	2013	13/03
포도	13,656 (35.1)	27,835 (46.8)	64,185 (58.2)	74,637 (60.6)	117,935 (60.3)	167,016 (71.1)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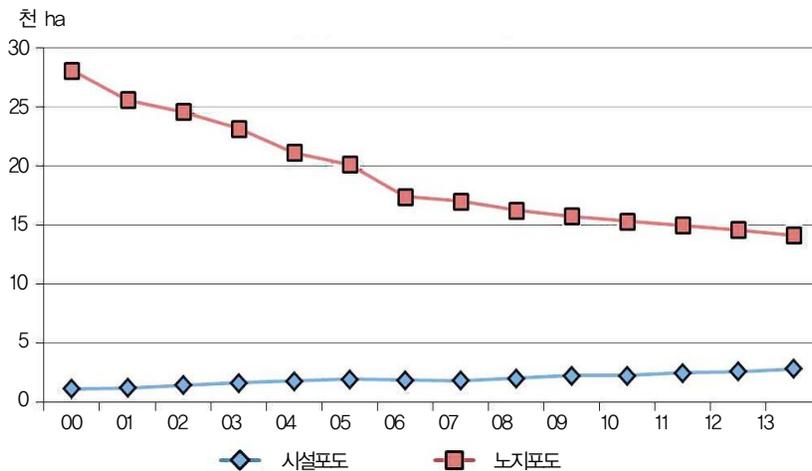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칠레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

칠레산 포도 수입 단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kg당 1달러 수준이던 수입 포도가격이 2013년에는 kg당 3달러를 초과하여 불과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45%였던 수입관세가 10년에 걸쳐서 균등 철폐되었지만, 칠레산 포도에 대한 국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즉 칠레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2003년), 미국(2004년), 중국(2006년), 일본(2007년) 등 거대경제권과 맺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칠레산 포도에 대한 국제 수요를 확보한 것이 칠레산 포도의 수입단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3. 칠레산 포도의 국내 과일시장 점유율

칠레산 신선포도는 10년 간 연평균 수입액 증가율이 29%로 이전 5년 간 평균증가율 13%를 크게 상회한다. 칠레산 포도는 대체로 1월에서 6월까지 수입되는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수입량의 88.4%가 집중되어 수입된다.²⁾ 칠레산 신선포도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국내 시설포도³⁾의 재배면적은 한·칠레 FTA 이행 첫 해 1,781ha에서 2012년 2,802ha로 약 1천 ha가 증가하였다. 국내 포도 생산은 1990년대 말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며, 노지에서 시설로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 FTA가 발효되면서, 이후 시설포도 재배면적 증가율은 다소 완화되었다⁴⁾ <그림 5 참조>.

그림 5 국내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재배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농업면적조사).

칠레산 포도 수입은 봄(3월~5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설포도 이외에도 이 시기에 출하되는 딸기, 토마토, 참외 등과 같은 과채류와도 일정한 소비대체관계를 형성한다. 칠레산 포도의 3월~5월까지 국내 과일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3년 1%에서 2012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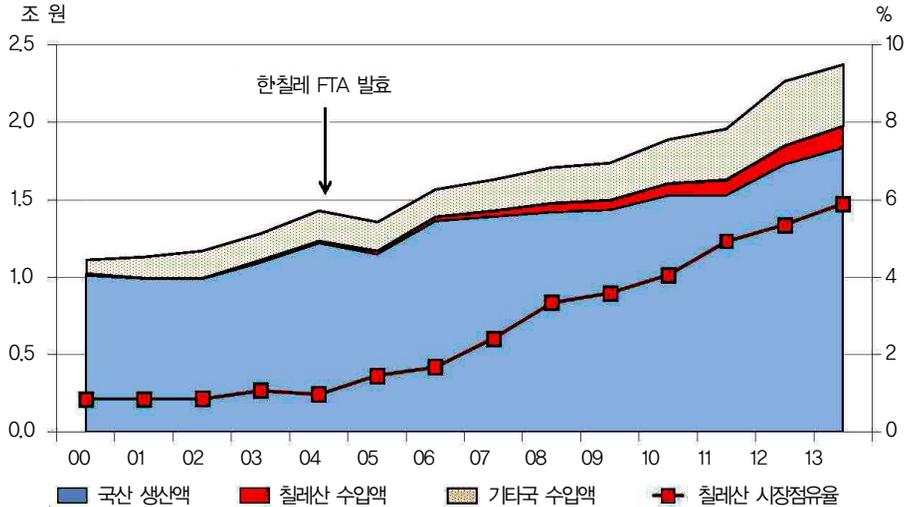
2) 2010년~2013년 평균치

3) 최근에는 4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가 국내에서 저장을 통해 5~6월까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성출하기인 5~6월의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미침

4) 노지포도 재배면적은 1999년 29.5천 ha로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 23.2천 ha에서 2013년 14.1천 ha로 약 9천 ha가 감소함. 이로 인해 국내 포도 생산량은 2000년 47.6만 톤에서 2003년 37.6만 톤, 2013년 26.7만 톤으로 감소. 한편, 시설포도 재배면적 증가율을 한·칠레 FTA 발효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발효 이전 2000~04년 평균 증가율은 12.4%였으나 발효 이후 2004~13년 평균 증가율은 5.2%로 약 7.2%p 하락.

로 확대되었지만, 동 기간 동안 국산 과일의 점유율은 85%에서 77%로 하락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3~5월 국내 과일수요와 칠레산의 시장점유율 추이



주 과일 총수요는 수입액과 생산액의 합계
 자료: GTIS-GTA.

5. 시사점

5.1. 칠레포도 공급 시기와 경합관계에 있는 국내 과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칠레 포도는 품질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칠레 포도는 주로 III~VII지역에서 생산되며, 특히 수도 산티아고 주변의 제V지역과 제VI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이 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305~355mm로 매우 적어 당도가 높은 포도를 생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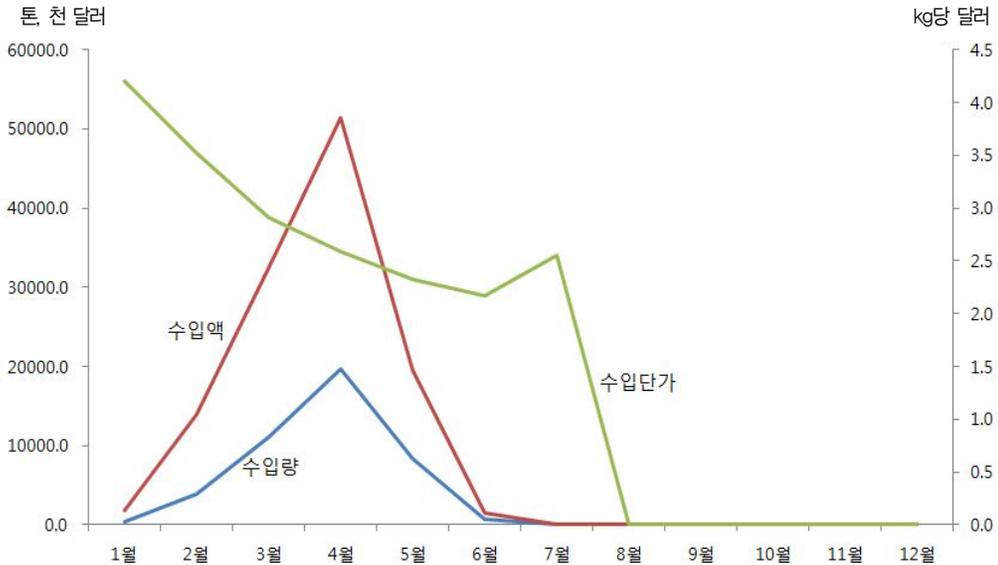
또한 안전성관리 측면에서도 동쪽으로는 안데스산맥이,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위치하여 외래병해충이 투입될 여지가 매우 적어 안전성이 높은 과실을 생산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안전성이 높은 포도를 생산하는 법규를 포함하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높으며, 포도 선별 및 포장단계에서 우수한 공정관리와 표준위생절차를 적용하여 위해물질관리(HACCP)와 작업자의 후생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과일 생산농가가 칠레 수입포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칠레 포도가 주로 수입되는 3~4월에 출하하는 딸기, 토마토, 참외, 사과 등의 시설재배 과채류와 과일류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7 칠레 포도당도



그림 8 칠레산 포도 월별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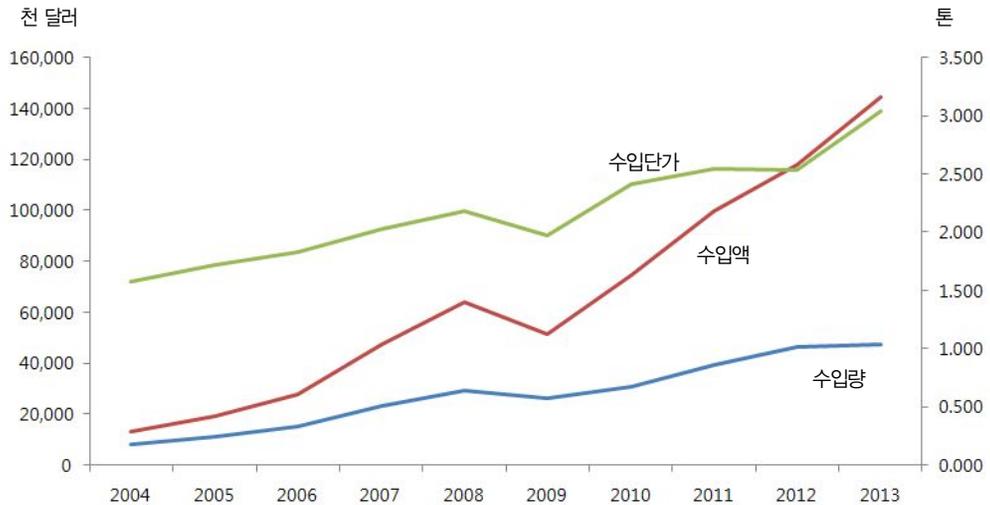


5.2. 칠레 수입포도 가격경쟁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칠레 포도는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8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품질이 우수한 칠레 포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3.7% 수준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출단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다. 향후 칠레 포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출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칠레산 포도 수입가격이 높아질 경우 국내산 과일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칠레 포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비자 들의 과일 구매행태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당도 등 품질이 우수한 과일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과일류의 다양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개발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림 10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 동향



자료: FAO.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칠레 농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USDA FAS. 2009. Chile Food Processing Sector, 200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참고사이트

국제무역협회연맹 (www.fita.org)

글로벌무역정보서비스 (www.gtis.com)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www.samaco.co.kr/gongsa/index.jsp)

칠레관세청 (www.aduana.cl)

칠레농업부 (www.odepa.gob.cl)

칠레신선과일연합회(ASOEX) (www.cffa.org/home.shtml)

통계청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해외산업정보 (www.kiet.go.kr)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www.ois.go.kr)

FAO (www.fao.org)

FAOSTAT (faostat.fao.org)

UN Comtrade (www.comtrade.un.org)

구글 (www.google.co.kr)

위키백과 (www.en.wikipedia.org)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04d3332b>

www.chileimage.com

www.chileinfo.com

www.prochile.cl

www.chilegap.com